

Fresh 공동체

공동체 활동 3차 우수 제안서
작성자 시상

핵심역량 연계
고글특강

1회차 청춘경영, 들이대고 저질
러 봐

비교과 학생
모니터링단

모니터링단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비교과

학생모니

터링단

웹진

september

09



Fresh 공동체 활동 3차

우수 제안서 작성자 시상

Fresh 공동체 활동은 각 학과(부)에서 선발된 멘토들이 신입생 및 1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1년간 대학 정보를 제공해 주고, 대학 생활의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멘토-멘티 활동(Fresh 공동체 활동)으로 신입생과 같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안해봤고 그 내용에 대해 우수한 제안서들을 선발 및 시상식을 미래교육혁신본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총 7편의 우수한 여러 제안서들 중 세 편이 선발되었습니다.

- 다양한 장소에서의 미션 및 패들렛 플랫폼 활용 (미래교육혁신본부장상, 정우찬)
- 메타버스 어플 <ZEPETO> 활용 (Fresh상, 박세민)
- 멘타-멘티 간의 미션 활동 및 어학 능력 향상 활동 (Fresh상, 여수빈)



시상자 인터뷰 내용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2학년 정우찬 학생이 활동 제안서 1등상 미래교육혁신본부장을 수상했고 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던게 컸으며 Fresh 공동체활동 이외에 삼성드림클래스 등의 멘토링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경험, 교류 부분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 Fresh 공동체 활동 참여하기 ”

제가 신입생일 때, 저는 리더라는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때, 저는 전자공학부의 한 선배님의 멘티가 되었고, 당시 선배님께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끄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이에, 저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군을 전역한 후 복학하기 전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신입생 멘토를 진행하기 전의 저와, 현재의 저는 **리더십 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신입생 멘토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비단 저분만은 아닐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에, 현재 신입생들도 추후 선배라고 불리는 날이 왔을 때,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입생 멘토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 혹은 걱정되는 부분 ”

아무래도 신입생 멘토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원 관리**입니다. 저는 현재 25명의 전자공학부 반도체시스템전공 신입생들을 맡고 있는데, 모든 인원의 시간표를 고려하면서, 제 시간표를 비교하여 활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25명을 4개의 팀에 분배하여 멘티 간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만들어 제가 미처 신경쓰지 못 할 때에도 멘티들끼리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1학기 때부터 피곤함을 이유로 모든 활동에 불참한 인원이 있는데, 한번도 만나보질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성별도, 성격도 다양각색인 신입생 25명이 모이다보니, 이러한 인원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점이 아쉬웠다’ 등 자기 성찰을 하게 되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패들렛 플랫폼이 무엇인지? ”

패들렛 플랫폼은 최근 들어 교육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플랫폼입니다. 이에, 공학도인 저는 올해 여름에 진행된 삼성 드림클래스 정기연수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패들렛이라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정기연수에서 여러 활동이 있었는데, 이때 패들렛이 주로 활용되었고 저 역시 이러한 플랫폼을 신입생 멘토 활동에도 쓰면 좋지 않을까? 하여 패들렛 플랫폼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뛰어난 접근성과 익명성, 댓글 기능을 통한 쌍방향 소통 등 라포 형성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신입생 멘토와 멘티 간 라포 형성을 위하여 미션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자 인터뷰 내용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미션(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는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미션은 2번 핫플레이스 찾기입니다. 제가 제안서에 제출한 미션은, 숨겨지거나 홍보가 필요한 장소들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멘토들의 시간 부족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미션과 연계되며, 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학교의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고 계속 이용하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유용하며, 도장찍기를 통하여 다음 미션과 연계성이 좋아 동기 부여가 되고, 멘티 스스로 다녀와 멘토의 시간 부족 문제를 개선**되는 해당 미션을 도출하였습니다. 신입생 멘토 담당자분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미션은 활동 1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제안한 미션의 목표와 일치하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무래도 1학기의 마지막 활동이 끝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저는 신입생 멘토 활동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제가 지금 옳게 하고 있는지, 신입생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들이 신입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1학기를 끝내면서 감사 인사를 보내주었고, 커피, 과자,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받았습다. 이에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잘 해냈구나 등 많은 생각이 들었고, 매우 뿌듯했습니다. 아마 이 기억은 좋은 추억이 되어 제 삶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신입생 학우분들에게 바라는 점”

아무래도 가장 바라는 점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멘토는 신입생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신입생 친구들이 표현하지 않으면, 멘토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멘토라는 사람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친한 형, 누나쯤으로 생각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를 하면서 좋았던 점”

아무래도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신입생 멘토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같습니다. 또한, **제 전공의 후배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회들,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뿌듯함 역시 좋았던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 중 하나는 바로 등록금 범위 외의 큰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범위 외로, 1학기에 100만원, 2학기에 100만원,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은 아마 신입생 멘토 장학금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 멘토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멘토링의 장점들과 신입생들을 위해 멘토 활동을 진행하면서, 부가적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 같습니다. 더욱이, **금전적인 문제로 이러한 멘토 활동을 꺼려왔던 멘토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멘토 경험을 토대로, 이번 학기 삼성 드림클래스 멘토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점 역시 좋았습니다.

시상자 인터뷰 내용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개선점 등)”

개선점은 멘티의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강화물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래도, 신입생 친구들은 왜 자신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신입생 멘티일 때보다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의 멘티였을 때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 활동이 멘티의 취업이나 진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각인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한 멘티들에게는 근처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하여 현장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도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멘토 활동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에, 곧 다가올 겨울에 있을 신입생 멘토 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 제가 느낀 것들을 다들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른 멘토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이 후 멘토들은 신입생들에 대한 개별상담 제공과 교내나 학교 주변에서 멘티들과 함께 주요 시설스터디룸, 중앙공원)들을 둘러보며 우리 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멘토가 되고 싶은 분들은 12월 말 부터 모집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총 세 번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금
오공대 학생들의 G-ICON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핵심역량 연계 고금특강



협업

9.21. (목) 11:00

디지털관 시청각실 DB127

**청춘경영,
들이대고 저질러 봐**

유영만 교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도전

10.19. (목) 15:00

산학협력관 시청각실(104호)

**창업으로 인생 역전?
만원 한장이면
충분하다**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대표이사



창의

11.2. (목) 11:00

디지털관 시청각실(DB127호)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금오공대 학생들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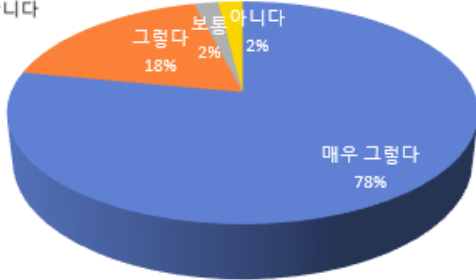
1회차 - 2023.09.21

유영만 교수(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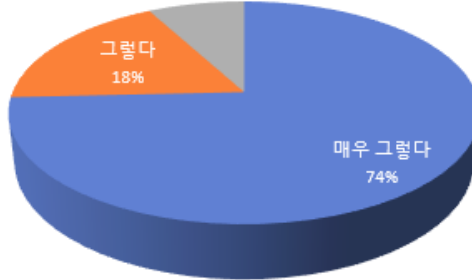
청춘경영, 들이대고 저질러 봐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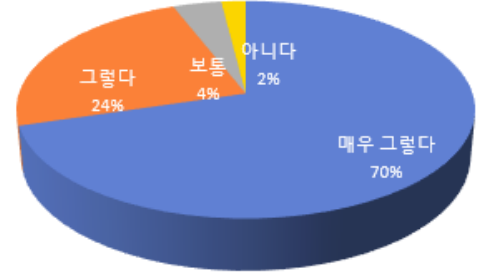
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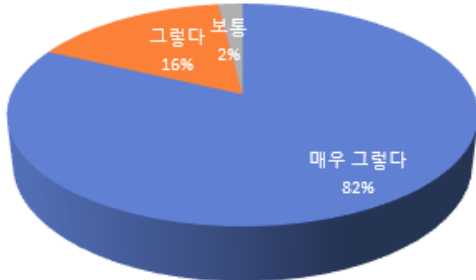
강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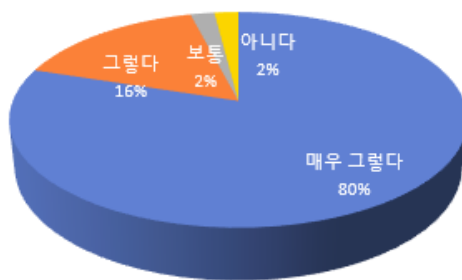
목적과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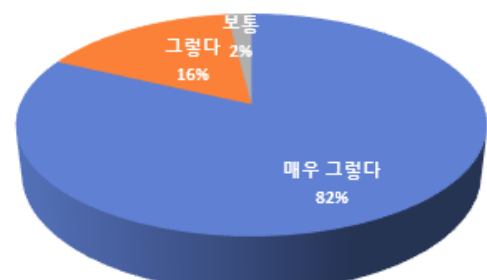
교육 환경



전반적인 만족



강사진



1회차 특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느꼈으며 강의 수준과 강사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앞으로도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님이 많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정서함양 및 심리안정

29

진로, 취업역량 향상

17

취미관심사 개발

13

전공흥미 유발

7

친구나 선후배 관계 향상

1

기타

1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정서함양 및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취업준비 및 시험공부로 지친 학우들에게 쉬어가는 의미에서 고글 특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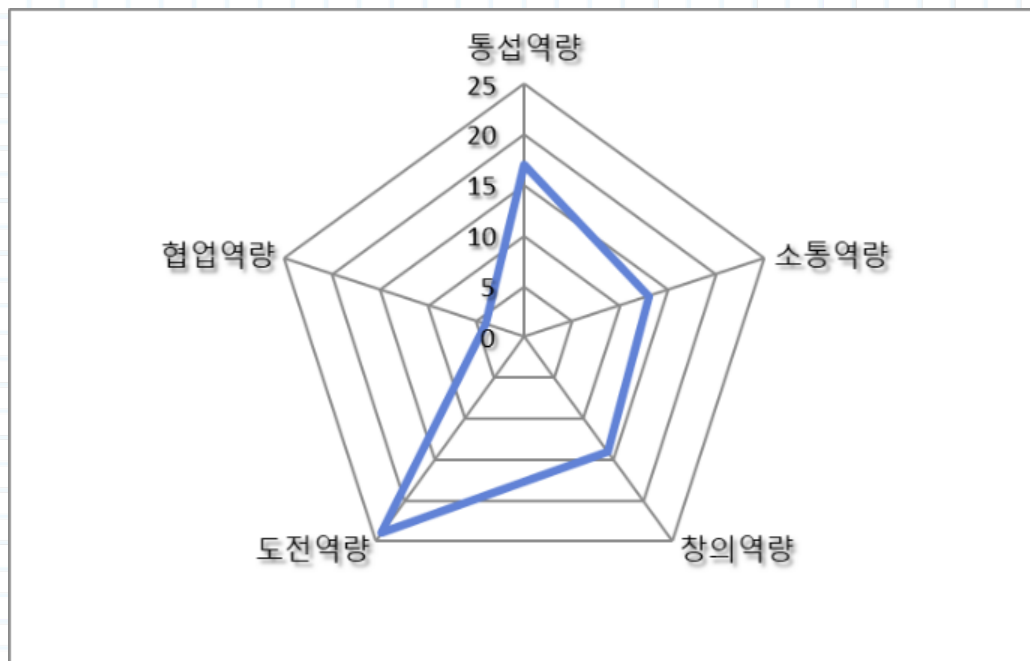
금오공대 학생들에게 물었다!

1회차 - 2023.09.21

유영만 교수(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청춘경영, 들이대고 저질러 봐

본 프로그램이 핵심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



통섭역량 : (Global)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

소통역량 : (Interactive)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역량

창의역량 : (Creative)

복잡한 문제 해결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역량

도전역량 : (Overcoming)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기꺼이 도전하는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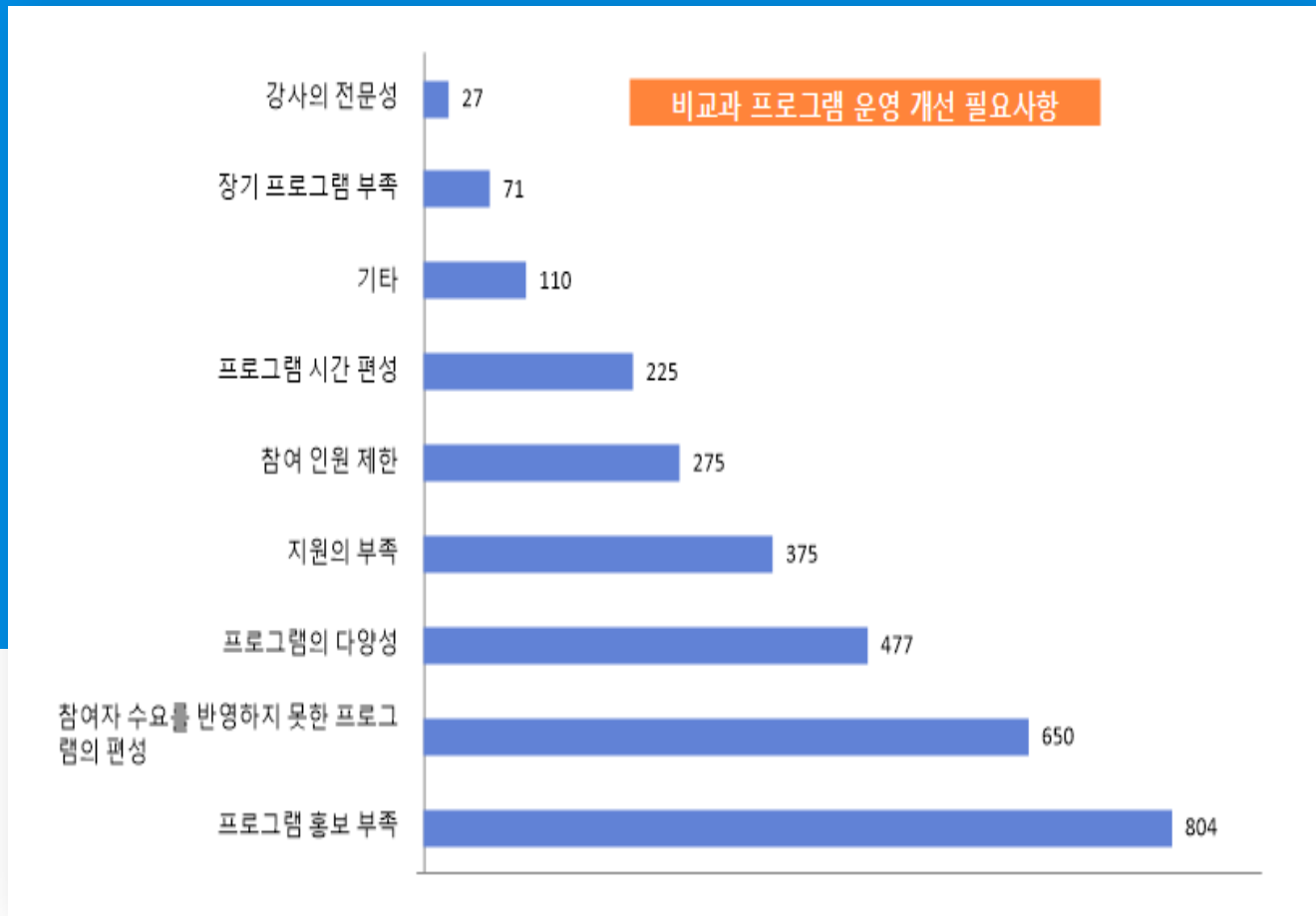
협업역량 : (Networking)

지역사회나 세계와 함께 성장하고 봉사하는 역량

계속해서 고글특강 [2회차]2023.10.19. + [3회차]2023.11.2. 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교과 학생 모니터링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했던 점은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이 19.2%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홈페이지의 원스톱-BISKIT-비교과 활동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금오톡톡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하지 못하거나 생각해뒀다가 잊어버려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한 걸음 다가가서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받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생긴 조직이 학생 비교과 모니터링단입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어 많은 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배워나가게 된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오공과대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하는 단체인 학생 비교과 모니터링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Conclusion



[집필부]



[수집부]



[디자인부]



[취재부]

집필부는 학교 소식, 학생 비교과 모니터링단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웹진, 카드 뉴스에 담을 내용들을 작성합니다.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설문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채우기 위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점에 있어서 바뀐 점, 활동했던 내용들을 달마다 되돌아보면서 조직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합니다.

수집부로써 카드 뉴스에 들어갈 학생들에게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봅니다. 앞으로 진행될 계획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하고 활동 내용, 강사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취업할 때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 등을 찾아서 알려주는 업무를 맡습니다.

디자인부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홍보물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월마다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담은 카드 뉴스, 학교 소식을 담은 웹진의 배경과 이미지, 전체적인 틀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디자인으로 꾸밀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취재부로써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취재할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참가자, 강연자에게 다가가서 각자의 생각은 어땠고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바뀐 점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활동 계획 등을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미흡한 점 또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기도 합니다.